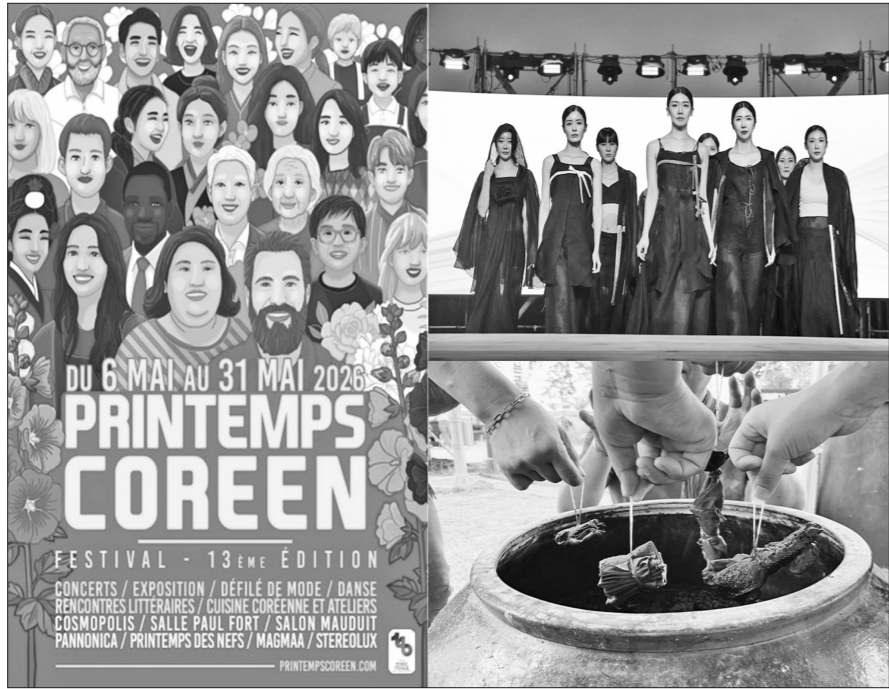


나주시, 프랑스 낭트서 ‘천연염색 문화외교’



‘한국의 봄’ 축제 참가...전시·체험·패션쇼 등 운영 ‘나주방문의 해’ 연계...현지 문화예술인 유치 추진

나주시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 축제를 계기로 천연염색을 앞세운 문화외교에 나선다. 전통 공예의 국제적 확산과 함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Printemps Coreen)’ 축제에 참가해 전시와 체험, 공연이 결합된 복합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참여는 한복 수교 140주년을 기념

하는 행사다. 코스모폴리스를 비롯한 낭트 주요 문화 공간에서 개최되며, 전시와 공연, 체험이 결합된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박물관은 행사 기간 천연염색 특별 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전시는 자연에서 얻은 색과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전통 염색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감각적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또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쪽 염료를 활용한 손수건 염색 체험과 전통 장신구 ‘땡기’ 만들기를 운영해 관람객이 직접 전통 염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천연염색 의상을 활용한 패션쇼도 선보인다. 나주 천연염색 의상을 적용한 모델들이 무대에 올라 라이브 연주와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며 색과 음악, 움직임이 어우러진 몰입형 퍼포먼스를 통해 천연염색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표현한다. 이번 프랑스 현지 프로그램을 계기로 가을에는 낭트 ‘한국의 봄’ 협회와 연계해 프랑스 문화예술인과 단체 관람객이 나주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제는 ‘2026 나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국제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 교류와 천연염색 체험, 지역 문화 탐방 등을 통해 나주의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한국 전통공예의 국제적 확산은 물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관장은 “전시와 체험, 공연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염색의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며 “현지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 매력 알린다” 일본 여행업계에 관광 자원 홍보

여행사 관계자 20명 초청...사전답사 여행

담양군이 일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 소도시 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일본여행업협회(JATA) 소속 여행사 관계자 20명을 초청해 사전 답사 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한국의 소도시 30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도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방문해 수려한 대나무 숲의 정취를 체험했으며 ‘제25회 담양 대나무축제’ 현

장을 미리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기수도 전통장 체험과 대동법, 떡갈비 시식 등 지역 고유의 식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슬로시티 담양의 매력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는 일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로컬 체험형’ 관광과 맞물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군과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답사를 계기로 일본 시장에서 한국 소도시 관광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 개발과 관

객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경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전 답사 여행은 담양을 비롯한 한국 소도시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일본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담양군만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인 방문 관광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화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10월까지...재선충병 확산 차단 조치

화순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목재 생산업체, 조정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정수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관리대상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 확인증과 영수증을 통한 원

목 출처 확인, 적지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 공·탈출공 여부 확인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및 제19조(과태료)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목을 취급·유통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 등 사법 처리까지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면서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장성, 뮤지컬 ‘똥똥이 할멈’ 공연 9일 문화예술회관...관람 6000원

장성군은 오는 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똥똥이 할멈’을 선보인다.

인기 동화가 원작인 ‘똥똥이 할멈’은 평범한 똥똥이가게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히어로 할머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소동극이다.

공연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2회 열린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수첩에 도장(스탬프)을 받는 ‘스탬프 수첩 이벤트’도 기다린다.

예매는 장성군 누리집 또는 문화교육과(061-390-8599)에 문의하면 된다.

관람료는 6000원이고 어린이는 절반 가격에 볼 수 있다. 군민은 30일 오후 6시부터 8시, 또는 5월 1일 오후 2시 이전에 현장에서 표를 구입할 수도 있다.

장성=이행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흥,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수막 게시 등 주민 대상 홍보

장흥군은 최근 노영환 TF단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1일부터 추진 중인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처리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부근수를 단장으로 재난안전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행복민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유 시설물과 적치물 등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변상금 부과, 과태료 처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마을방송, 포스터 부착 및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광양 세풍간척지서 올해 첫 모내기 ‘똥년 기원’ 광양지역의 첫 모내기 행사가 세풍간척지에서 실시, 올해 똥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번이 심은 수도작 품종은 고품질인 ‘하늘이 내린 쌀’로 광양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과 출하를 연계해 재배하며 지역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해 사시제곡-광양시형

영암, 시니어 의사 채용...의료 공백 해소

30년 경력 전문의 진료 시작...군서보건의료소 배치

영암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근 시니어 전문의를 채용해 군서보건의료소에 배치했다.

군은 약 30년 경력의 흉부외과 전문의를 시니어 의사로 채용해 군서보건의료소에 배치해 6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군서의원 폐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채용된 전문의는 원자력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의료진으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진료를 맡게 된다.

특히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로 농어촌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니어 의사 채용은 대안적 인력 확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해 보건소와 상호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시작하며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이어 2025년에는 금정면에서는 주민 주도로 배업 의원을 재개원하는 등 지역 중심의 의료 대응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희숙 영암군 보건소장은 “군서의원 폐원 이후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며 “시니어 전문의의 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식의 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순천 낙안읍성, 한복 무료입장 시범운영

31일까지 체험형 방문 유도

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낙안읍성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복궁 등 주요 국유유산 시설의 한복 무료입장 추세에 발맞춰, 대한민국 대표 민속마을인 낙안읍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입장 대상은 전통 한복을 상하의 모두 제대로 갖추어 입은 관람객이다. 한복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거나 평상복에 치마만 걸치는 등 불완전하게 착용했을 경우 무료입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낙안읍성 한복 착용으로 단순

입장객이 아니라 홍보 콘텐츠(SNS, 쇼츠 등) 생산자 역할까지 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어,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파악한 뒤, 한복 무료입장 기간을 더욱 확대해 계획한다.

한편, 한복 대여는 낙안읍성 동문 입구 우측에 소재한 난전 4호점(낙안 곳간)에서 가능하다. 한복 대여 시간은 30분~2시간으로 착용자 여행시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한복 체험이 외국인에게는 한국 문화 이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내국인에게는 단순 관람을 기억에 남는 체험으로 전환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성 기자 2556pk@

